

서부권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신안군

연도·연륙교 기간내 마무리

민선 5기 신안군의 현안은 지도~임자도간 등 섬과 섬을 잇는 연도·연륙교 사업과 천일염 명품화, 획기적인 농·어민 소득증대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박우람 신안군수는 정당가입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접전이 예상됐으나 투표결과 박 군수가 큰표차이로 당선됐다.

실질적으로 민선 4기에 박 군수가 추진한 정책은 기발하고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았으며, 전국 차단체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신안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천일염 생산현장.

박 군수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고들은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해

공립형 기숙학교 정착 등 명문학교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안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폐교를 적극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해 문화 관광시설도 점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도~임자간·하의~신의간·안좌~자라간 연륙·연도교 사업을 기간내에 완공하고 세계적 꽃피는 섬을 조성해 '천사의 섬' 신안 다도해 섬들을 공원화, 세계적인 생태환경 관광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특히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육성하고 군역별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선 5기에 신안군민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우람 군수는 "민선 4기는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단계였다면, 민선 5기는 희망이 썩는 신안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천일염 명품화·농어가 소득증대 사업도 추진

'천사의 섬' 다도해 공원화...생태 관광지 육성

'희망이 썩는 신안' 군정구호 아래 '천사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바다와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22배에 달하는 공간을 찾아냈다. 전국 최초로 야간 여객선 운항과 공영 버스를 도입했으며, 45년만에 천일염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해 신안 천일염 산업에 날개를 달았다.

원어민교사 배치·장학재단 설립 등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섬교육에 희망을 불어 넣었으며,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민선 5기 군정에 반영해 나갈 생각이다.

선거 공약에서도 강조했다. 농수축산 품목별 재배시설과 가공시설·소포장 시설 등을 지원하고 전 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국적인 홍보 및 유통·판매시스템을 마련해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1읍면·1종합 복지타운'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버스 증편과 주·야간 여객선 증편 등 섬 교통을 더욱 편리하고 각급 학교에 무료급식 지원과

신안군 7개 낙도 선착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신안군 7개 낙도 선착장에 대기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신안지역 73개의 유인도서 가운데 60개가 '섬 중의 섬'인 작은 섬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빈약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총 4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의면 옥도 등 7개 낙도에 공중 화장실과 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사진> 특히 공중 화장실은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잘 어

울리는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한 원목형으로, 자연채광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개소당 7000만원씩 14억원을 들여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영광군 폐기물 매립 단속 '걸함기'

일부만 수거 과태료 부과 처리 "업체 봐주기" 비난

영광군이 폐기물 무단매립 사실을 알고도 감추기에 급급해 물을 빙고 있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모 건축자재업체의 주차장 부지(660㎡)에 수십의 산업폐기물(콘크리트 등)과 생활쓰레기가 불법 매립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 지 중장비를 동원해 땅 3m 가량을 파고 콘크리트 등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묻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현재 이 땅에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군은 같은 날 현장답사를 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 4.3t 가량의 산업폐기물 등을 수거해 처리하고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군은 신고 내용과는 달리 일부만 파헤치고 극히 일부 폐기물만 수거, 허술하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을 땅에 묻었다고 신고한 이

모씨는 "15t 덤프트럭을 동원해 10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등 산업폐기물을 묻어왔다"며 "대충 계산해도 수십t을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군청에서는 4t만 수거하고 업체 봐주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은 "다음 주 민원인의 주장대로 땅을 모두 파고 묻혀 있는 폐기물이 5t 이상이면 환경청에 수사의뢰하겠다"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김환기 화백 고향 신안 안좌도 문화·예술촌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 화백의 고향인 신안군 안좌도가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한다.

신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 마을 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문화소동' 부문에 선정돼 받은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안좌도를 문화·예술

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마을로 가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김환기 생가의 전시 공간 활용 및 주변 환경디자인 사업 ▲주변에 산재한 폐가를 고쳐 '예술창작 스튜디오' 및 공부방' 개설 사업 ▲시계탑 구조물에 음동마을 주민 얼굴을 모자이크해 제작, 설치하는 '불멸의 탑' 조성사

업' 등이 이뤄진다.

또 음동 선착장에서 생가에 이르는 1km 구간 도로를 '김환기의 길'로 명명하는 사업도 편다.

한편 '2010 마을미술 추진위원회'(maeulmisul.org)는 다음달 1·2일 '우리 동네 문화소동'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 및 단체를 공모한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남도 들노래 재현

진도군 지산면 인지의 주민이 최근 지산중학교 앞 들녘에서 '남도 들노래'를 부르며 옛 방식 그대로 모내기(勞動)를 재현하고 있다. '남도 들노래'는 논이나 밭일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勞動謠)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 51호로 지정돼 있다. <진도군 제공>

서남해 항해 어구과손 조심!

목포해경 닻자망 조업철 맞아 주의보 발령

전남 서남해를 운항하는 각종 선박에 '어구 과손 주의보'가 발령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본격적인 닻자망 조업철을 맞아 어구과손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항행 정보 제공 등 피해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닻자망 어선 조업구역은 영광 안마도에서 신안군 칠발도에 이르는 해역으로 300여 척이 몰려다니며 병어와 첫새우를 잡고 있다.

특히 이 해역은 상선이 시간단축과 유통비 절감을 위해 연안으로 바짝 붙어 운항하면서 어선들이 쳐 놓은 그물 등을 망가뜨리거나 추진기 장애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일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예인선의 720t급 부선과 조업 대기중인 10t급 닻자망 어선이 충돌,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실종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닻자망 어선의 주어획대상인 병어의 어획부진으로 조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화물선 항로와 겹쳐 충돌과 어구가 찢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해역에서는 2007년 181건, 2008년 158건, 지난해 103건, 올해 들어 현재까지 7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목포세관-무안갯벌낙지협회 특산물 보호 협력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삼)과 (사)무안갯벌낙지생산지협회(대표이사 임현기)는 최근 세관에서 '서남해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한 민·관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수입산 낙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보교환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세관은 수입반입 동향을 제공하고, 무안 낙지협회는 산 낙지의 현장 유통 정보를 세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민기자 sslee@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4,000평
• 건물: 650평
• 전: 9,500평
• 합계: 13,500평
- 매가: 40억 5000만원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41-0163369호
현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521-6024 (FAX)521-6028
공장 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 (1,500평)
• 건물 2,176㎡ (658평)
• 호이스트 5t, 10t (총고 9m)
• 매가가 22억 5천만
물류창고임대
하남공단 8번로
• 건물 1,510㎡ (475평)
• 임대료가 평당 1만 7천원
• 총고높이 7m
• 현 대로변 위치 최고

금산공인중개사
T.881-588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도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기/오피스/유통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미양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입주유소
• 매가가: 1억 7천만원
매일동 자연녹지 매매
• 면적: 약 3,870㎡
• 단가: 평당 200만원
• 위치: 매월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도로변
• 빌라, 가든, 전원주택 최적지
• 지가 급증지역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 큰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히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리고 허탈감 속에서 불신임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큰놈을 보고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이 혹사나 하고 이번에도 반신반의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사용중지 불만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니 몸인지 생사인지 정돈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망가부턴 개선은 위한 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 하여도 피부같은 자극이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 최대의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름... 분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모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의사와 약사가 명예를 걸고 3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개발한 이 제품은 그동안 남보르게 고민해오던 탈모 무모증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 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니 제품도 달라야겠지요? 모근에 영양 공급이 바로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1588-4102
010-5296-4114, 010-8952-411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 전선영 (홍신평매 NO. 19-5301호)
www.한나경.kr